

## 다이어트, 또 하나의 한국병

- 방선기 목사 / 2001. 8. 21 -

콜롬비아대학교 교육학 박사, 현 이랜드 사목, 직장 사역연구소(BM)소장

최근 한 여자 개그맨의 살 빼는 과정에 얽힌 논란으로 다이어트가 사회의 핫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 지방흡입수술 소동뿐만 아니라, 사실 다이어트 - 살과의 전쟁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체중에 신경을 쓰고 뱃살에 대해 은근히 걱정을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이는 요즈음 사람들의 열기는 가히 광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에서는 비만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더 유별나게 사회적인 신드롬으로까지 확산된 듯이 보입니다. TV에는 온통 광마른 연예인들로 가득 차고 간혹 뚱뚱한 사람이 나왔다하면 바로 놀림의 대상이 되기 일쑤입니다. 각종 식이요법부터 헬스클럽, 찜질방, 단식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이어트 산업은 봄을 이루고 있는데, 한 경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이 연간 1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다이어트 열풍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른 몇 가지 현상- 예를 들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라든가, 조기유학 붐과 같은 현상들과 무언가 공통점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 신드롬 역시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성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는 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집착,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학교성적에 대한 집착이 참 대단합니다.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도 결국은 이 집착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넘어선 이런 집착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착이 이번에는 다이어트나 지방제거 수술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쁘게 보이려는 마음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런 욕심을 가진 것은 어느 정도는 매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도를 넘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지나쳐서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잃기까지 한다니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들 안에 있는 획일적인 기준의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나 명문학교가 있고 부모들 중에는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 보내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거의 모두가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것을 모두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는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 맞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의 미용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배우라든가 모델처럼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누구나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아주머니들은 그들대로, 젊은 여성들은 그들대로 야단입니다. 물론 사는 동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그래야 된다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끝으로는 주로 매스컴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센세이셔널리즘(선정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육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메스컴은 교육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는지, 어떤 희한한 과외가 있는지 그런 것을 소개해서 오히려 붐을 조성하거나 혹은 외국의 특수한 사례를 소개해서 약을 올리는 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집착의 도는 더 강화될 뿐입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그우먼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전 사회의 이슈로 퍼지게 된 것은 언론의 선정성의 결과일 뿐입니다.

어느 사회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만을 보도해서 먹고사는 황색신문에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TV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과 주요 매체들의 선정성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회의 현상 속에서 넉크리스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크리스천들이 그런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무언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너무 쉽게 편승하는 모습 역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크리스천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흥종교라고까지 불리는 이 다이어트 신드롬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교육문제나 미용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 흐름에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일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